

1 차영아(가명). 15세, M여 중 2년중퇴. 공부가 하기 싫고 간섭하는 엄마가 싫어서 지난해 여름 친구와 함께 가출. 서울 松坡구可樂동 등에서 카페종업원으로 일했음. 주량은 맥주 8병. 담배는 하루 한갑정도. 지난 봄 서울 松坡구長井동 M룸살롱에서 일할때 웨이터로부터 성폭행당해 첫 성경험.]

지난 7월 경찰의 일제단속때 적발돼 동두천의 한여자 기술원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있는 10대접대부 차양은 인적사항란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다. 「인생이란 뭘까. 술집에 나가도 순결만큼은 지키고 싶었는데... 평소 내가 제일 천하게 생각한 직업이 술집여자였다. 그러나 이제 다 돌이킬수 없는 일. 집에선 돈의 중요함을 몰랐는데 사회에 나와보니 돈없이 살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차양의 자술서는 눈물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아버지가 공무원인李明양(16·K고 1년중퇴)도 부모들의 잦은 말다툼에 염증을 느껴 지난 8월 집을 나왔다.

李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레스토랑 남자종업원(21)의 소개로 서울 城北구 下月谷동 B카페에 취직했다. 주인(43)에게는 나이를 21세로 속였다.

1. 16세라고 하면 아버지 같은 손님들이 「영계」라고 하면서 더 귀여워해줬어요.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10만~20만원씩 받는 화대에 돈맛이 들어 은근히 외박을 기다리기도 해요」

그런李양은 「때로는 엄마생각이 나 울다 잠이 든 적도 있지만 그동안 술집접대부생활을 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몰라 도저히 집에 연락할 수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충격적이던 「10대접대부」는 어느새 우리사회의 일반화된 세태로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1년에 2천여명(90년 경찰청통계)에 달하는 가출10대소녀 가운데 대부분이 유흥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윤락녀보호시설인 서울 S기술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총입소자 9백 60명중 36.7%(3백52명)가 19세이하이며 이 가운데 15세미만도 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입소자의 38.9%가 고교중퇴 이상 학력이며 33.8%가 수도권지역출신인 점을 감안할때 무작정상경한 시골 처녀들이 호구지책으로 매춘에 발을 디딘

한해千여명 카페 룸살롱으로

“어릴수록 손님이 더 좋아해요”

가수 文珠蘭의 노래인「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를 감드려지게 불러 손님들로부터 인기가 좋았던 그는 저녁 6시경부터 일을 시작, 새벽 2~3시까지 일하며 하루 10여만원씩 팁을 받았다.

李양은 간밤에 받은 팁으로 영업시작전까지 낮시간에는 미장원에 들러 머리를 고치고 화장을 했으며 때로는 화장품과 옷가지를 사러 돌아다니기도 했다.

『일이 고된 공장보다는 놀면서 돈도 많이 벌수 있는 술집이 훨씬 낫다』는李양은 지난달 주인이 반강제로 떠밀어넣은 여관방에서 30

대남자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뒤 「외박」을 나가기 시작했다.

지금은 瑞草구方背동의 P카페로 옮겨 일하고있는李양의 왼쪽팔목에는 깨진 맥주병으로 그어낸 상처가 선명히 나있었다.

『16세라고 하면 아버지 같은 손님들이 「영계」라고 하면서 더 귀여워해줬어요.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10만~20만원씩 받는 화대에 돈맛이 들어 은근히 외박을 기다리기도 해요』

그런李양은 「때로는 엄마생각이 나 울다 잠이 든 적도 있지만 그동안 술집접대부생활을 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몰라 도저히 집에 연락할 수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충격적이던 「10대접대부」는 어느새 우리사회의 일반화된 세태로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1년에 2천여명(90년 경찰청통계)에 달하는 가출10대소녀 가운데 대부분이 유흥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윤락녀보호시설인 서울 S기술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총입소자 9백 60명중 36.7%(3백52명)가 19세이하이며 이 가운데 15세미만도 29명이나 되는 것

과거와는 큰 차이가 난다.

18면으로 계속

“애주가를 위한 건강식품!”

기분 좋게 마시고
깨끗이 깬다

酒仙

입중제약 *제품문의: 923-0081